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민홍*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라살아라네타대학은 말라본에 위치해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 있어 학교가 큰 편이다. 학교 시설은 한국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나, 4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p> <p>학교나 호스텔 입구엔 항상 가드가 지키고 서있으며, 가방검사를 매번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느꼈던 적은 없다.</p> <p>학교 주변에는 별다른 것 없이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패스트푸드점(졸리비) 등이 가까운 곳이 위치해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다. 시장은 걸어서 10분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에 갈 때는 여러 명이 모여서가는 것이 안전하다. 대형 마트는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을 이용하면 10-1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p>
수업	<p>처음에 본 레벨테스트 결과대로 개인마다 다른 시간표와 반을 배정받게 된다. 수업은 주 5일(월~금) 8시부터 6시30분까지 진행되며, 중간에 수업이 없는 공강(2시간)과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총 8교시(8시간)를 듣게 된다. 수업은 1:1수업(3시간), 대그룹수업(3시간), 소그룹수업(2시간)으로 진행된다.</p> <p>1:1 수업은 현지선생님과 한 방에서 말 그대로 1대1로 수업하는 형식이다. 영어만 이용해 대화해야하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등 회화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p> <p>대그룹은 10-12명 정도가 함께 수업을 듣는데, 이 중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섞여 있다. 매일매일 만나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며, 수업도 재미있는 편이다.</p> <p>소그룹은 대그룹 학생이 절반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5-6명이 함께 듣는 수업이다.</p> <p>선생님에 따라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숙제는 그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며 크게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매주 배운 내용을 paper test, speaking test, voca test를 봐야하며, 매주 2개의 에세이를 써야한다.</p>

Activity	<p>마닐라투어 - 대그룹 학생들, 현지인선생님과 함께 마닐라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활동이다. 우리 대그룹은 뱃을 빌려서 돌아다녔으며, 비용은 1인당 300페소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500페소 지원해줘서 개인적인 비용이 들지 않았다. (마닐라 투어시, Rizal park, Intramuros, Fort Santiago 방문하게 된다.)</p> <p>따가이따이 - 따가이따이는 필리핀에 있는 화산섬으로, 가면 말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왔다갔다 차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한번쯤은 가볼 만 한 곳이라 생각은 들지만, 말을 타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비용은 1700페소였으나, 후에 인원이 많아져 비용이 절감되어 178페소를 돌려받았다.</p> <p>민도로섬 - 2박3일 동안 섬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는데, 수상레저와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액티비티 중에 제일 재밌었다. 휴양지에서 자유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3500페소였으나,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개인적인 비용은 수상레저와 식사비만 썼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마닐라의 12월은 서울의 한여름 날씨와 비슷하다. 그러나 햇빛이 센 낮에는 항상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가 끝나면 이미 해는 다 저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덥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또한, 항상 학교와 기숙사에 에어컨이 빵빵했기 때문에 더워서 못 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내가 있었던 4주 동안은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비온 날이 총 4-5일? 정도였던 것 같다.</p>
안전	<p>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나 가지 말라는 곳만 가지 않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항상 소지품과 가방을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등 미리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p>
숙소	<p>학교기숙사( V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는 2인 1실을 썼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방과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경악했었다. 그러나 며칠 되지도 않아, 바로 적응했고 사는데 큰 문제없었다. 그냥 4주 동안 살만한 것 같다. 청소도 매일매일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과 베게 시트도 갈아준다.</p>
식사	<p>학교식당( V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학교 호스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 한식으로 다 나온다. 입맛이 크게 까다롭지 않으면 그냥 괜찮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다. 다만, 식단이 2주를 주기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메뉴가 약간 질릴 수</p>

	있다.
교통	<p>기숙사와 학교까지 약 3분 거리이다. 기숙사, 식당이 학교 바로 옆에 다 붙어있어 시간 내에 왔다갔다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p> <p>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패스트푸드점(줄리비) 등도 학교 바로 옆에 있다. 시장은 걸어서 10분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별다른 교통수단은 필요 없다. 대형마트는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을 이용하면 10-15분 내로싼 가격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매주 차량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신청한다면 더 편리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다.</p> <p>그 외에 먼 곳으로 이동할 때는, 우버택시나 그랩택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다. 미리 어플과 사용방법을 익혀가면 좋을 것 같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500,000	식비, 기념품비, 액티비티비용
합계	1,199,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p>어학연수 후기를 보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에게 나눠줄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갔는데,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가길 잘 한 것 같다. 꼭 선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선생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든다. 선물이 부담된다면 작은 엽서 하나 준비해가서 진심을 담은 편지라도 전해주고 오면 좋을 것 같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총 8분이었다.)</p> <p>학교 복장규율이 있어서 어떻게 옷을 준비해 가야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심하게 짧지만 않으면 대부분 통과시켜 주는 것 같다. 무릎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나 원피스 는 허용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준비하면 될 것 같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긴바지나 긴남방 등을 하나씩 챙기면 유용하다.</p> <p>노트북은 꼭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소그룹 마지막에 PPT발표가 있으나, 그 한번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가기엔 너무 큰 짐이다. 심지어 평소에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 거의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다. PPT발표는 다른 사람의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아예 PPT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노트북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p>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어학연수 기간이 4주였기 때문에, 사실 영어실력이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최소 8시간은 영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리스닝, 스피킹 등 회화실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현지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영어로 말하는 것에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주말에는 학교에서 벗어나 필리핀의 이곳저곳을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주어서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었다. 가서도 일부 액티비티 비용을 지원해주어서 부담 없이 여러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추억을 쌓고 올 수 있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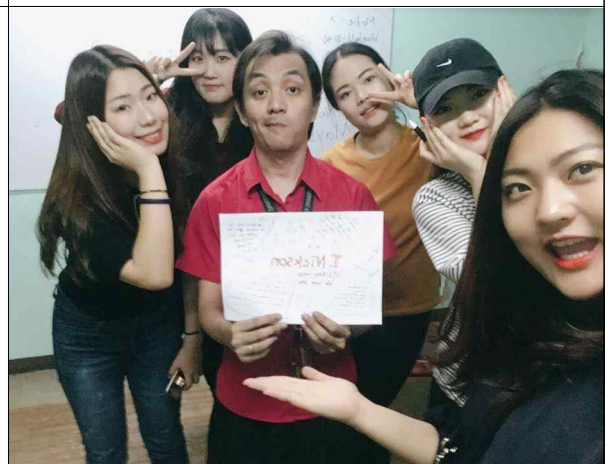
## 티쳐들과 찍은 사진



민도로섬



마닐라투어(대그룹BGC)



소그룹SGC



마닐라 오션파크



졸업식 순천향대 단체사진